

일본 SEK마크의 해외 전개 현황

- 방오가공에 이은 소취가공의 새로운 마크 전개 -

일본 섬유평가기술협회(이하, 섬기협)에서 1989년 8월에 항균방취가공 마크의 인증을 시작한 이후로 제균가공, 광촉매항균가공, 항곰팡이가공, 소취가공, 광촉매소취가공, 방오가공 및 항바이러스가공에 이어 “쾌적성”을 주요 컨셉으로 한 각종 기능성 섬유제품의 SEK마크제도를 추진하였다. 또한 이 마크제도의 운용에 따라 인증기준으로 하는 각 시험·평가 방법과 기준을 당시 최신 측정기술을 인용하여 JIS화 및 ISO화를 추진하였다.

SEK마크 제도의 확대 배경에는 일본 내 SEK마크 상품판매와 동시에 해외에서도 SEK마크가 알려지면서 블루사인(Blue-Sign), 에코텍스 스탠다드 100, ISO 1901 및 ISO 14001과 동등한 기준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높게 평가되고 있다. 섬기협은 활발한 해외전개를 추진하기 위해 주요 각국에 SEK마크의 상표등록을 확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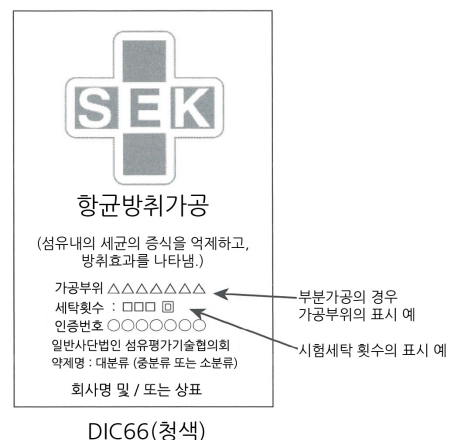
현재 해외에서 SEK마크가 부착된 상품판매가 가능한 곳은 섬기협이 상표등록을 완료한 나라로 중국(24류, 25류, 42류), 대만(24류, 25류), 홍콩(24류, 25류), 인도네시아(25류), 싱가포르(24류, 25류), 말레이시아(24류, 25류), 태국(24류, 25류), 베트남(25류), 터키(24류, 25류), 인도(24류, 25류), 한국(24류, 25류, 42류) 등 11개국이다.

- 24류 : 식물 및 식물제품(다른 류에 속하는 것은 제외), 침대커버, 테이블커버
- 25류 : 의류, 신발, 모자
- 42류 : 과학적, 기술적 서비스업 및 관련 연구, 디자인업, 산업분석 및 연구 서비스업,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디자인 및 개발업

또한, 해외판매가 가능한 마크는 항균방취가공, 제균가공(일반 용도), 광촉매항균가공, 항곰팡이가공, 방오가공, 항바이러스가공에 신규로 제균가공(특수 용도)과 소취가공이 추가되었다. 이에 따라 해외판매용의 새로운 SEK 표시마크로 하여 2017년 4월 1일부터 방오가공 마크, 2018년 4월 1일부터 소취가공 마크(모두 십자가 모양 마크)가 사용되고 있다(그림 1).



〈그림 1〉 해외판매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SEK마크 표시방법(영문버전)이 처음 사용된 방오가공 마크(좌측) 및 소취가공 마크(우측)



〈그림 2〉 세탁횟수의 표기가 추가된 항균방취가공 마크

해외판매가 가능한 SEK마크의 신청·인증에 대해서는 기존 일본법인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와 일본 법인을 대리인으로 하는 해외법인에 한정하고 있지만, 해외 유명브랜드로부터 직접 마크인증을 원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2018년 4월 1일부터 직접 면담을 하는 등 사무국이 신청대리인을 통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해외법인의 경우 직접 신청이 가능해졌다.

이후 해외법인의 SEK마크 인증 제1호가 된 한국 KOLON사의 항균방취가공 마크에 이어 대만SUNNY사가 항균방취가공 마크 및 방오가공 마크, ERICTEX사가 항균방취가공 마크를 2018년 5월에 인증받아 유럽 및 미국에 SEK마크 상품의 제조·판매를 시작하고 있다. 최근에는 앞서 언급한 3사 이외에 대만, 한국의 타 브랜드와 중국, 인도네시아로부터도 연이은 신청이 진행되고 있어, 7월경부터 현지에서 사무국 면담을 개시하였다.

그 외의 SEK마크의 해외전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방법으로 「2018 TITAS」 전시회에 출전하였다. 해당 전시회는 섬유원료, 실, 패션 원단, 홈텍스타일, 하이테크 소재, 부자재 등 최신 섬유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기능성섬유로 정평이 나 있는 전시회다(출품사 약 350개 업체, 방문객 약 30,000명). 또한 10월 26일~30일에 개최된 「2018 상해 ITMA ASIA」에도 카탈로그로 홍보하였으며, 동시에 해외잡지 「atb」(Asian Textile Business)에도 SEK마크의 광고와 카탈로그를 통해 해외에 어필하고 있다.

일본내에서는 항균방취가공 마크에 대해 4월 1일부터 내세탁성의 횡수표기 마크가 부기용어에 추가되었다. 기존 5~10회를 훨씬 상회하는 내세탁성 100회 이상의 높은 스펙을 만족하는 SEK마크상품도 시장에 출시되고 있어 각 회사가 소비자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신사업 전개로 경제산업성이 섬기협의 제안을 채택하여 APEC에 신청한 「Capacity Building on Testing Methods for Functionality Finishing on Textile Products and Certification Methods Within the APEC Region」이 제 1차 심사를 통과하고,

최종 서류조사가 접수되었다. 이 신청은 APEC 지역 내에 있는 섬유제품의 기능성 시험방법과 인증시스템의 능력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일본이 개발하여 JIS 및 ISO에서 발행이 끝난 항균방취, 소취성, 항곰팡이, 항바이러스의 4개 시험법을 APEC 지역 내에 알리는 것과 동시에 ISO 17065에도 통일된 규격화를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세미나와 비교시험 등을 개최하여 각국 시험기관의 능력을 높이는 등 시험방법과 평가기준의 양면에서 섬기협이 자랑하는 마크제도의 표준화를 목적으로 함. 그리고 이를 통해 각국의 무역장벽을 해소하고, 소비자의 안전·안심을 지키는 건전한 인증제도 실현의 기대」를 의미한다. 더구나 본 사업은 항균방취가공 마크 개시 이래 「섬기협 마크제도 30주년 기념사업」이 될 예정이다.

♣ 일본가공기술 Vol.53, No.6 (2018)